

## 과학기술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4 體液說과 四象醫學 이론 체계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sup>1</sup>  
백진웅<sup>1\*\*</sup>

### A comparative study on Humor theory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viewpoi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tory

Baek Jin-ung<sup>1\*\*</sup>

<sup>1</sup>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and Four Humor Theory (FHT).

**Method** : 1. The theoretical comparison was focused on the central pillars of both theories, i.e., the theories of Hippocrates and his successor Galenos as well as Lee Je-ma.

2. Research papers on SCM and FHT were collected as follows. First, relevant papers were searched for using several electronic databases: Pubmed (<http://www.pubmed.org>), NDSL (<http://www.ndsl.kr/index.do>), KISS (<http://kiss.ksstudy.com>), and RISS (<http://www.riss4u.net>). Keywords were 'Sasang', 'constitution', 'constitutional medicine', 'humor theory', 'Hippokrates', 'Galenos', and "Donggeuisusebowon". In addition, relevant papers were searched for using the website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http://medhist.kams.or.kr>),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http://www.wonjeon.or.kr>),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ttp://www.esasang.or.kr/new\\_home/main.htm](http://www.esasang.or.kr/new_home/main.htm)),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http://www.ksomp.or.kr>). As a result, a total of 32 papers were included in the final selection.

**Result & Conclusion** :

In this study,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FHT and SCM in terms of physiology, pathology and therapy. We showed that the theories shar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However, in a practical sense, the two should be characterized based on their differences rather than their similarities. In conclusion, the two have something in common, but overall, they are remarkably different from each other.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Four Humor Theory (FHT), Typology

## I. 序論

세상 만물이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체도 네 가지 體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體液들의 균형 여하에 따라 건강과 병적 상태가 결정된다는 4 體液說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B.C.460~B.C.377)가 이론적 기초를 세웠고, 이를 이어 받아 고대 로마의 갈레노스(129~199)가 완성시켰다<sup>1)</sup>. 이후 4 體液說은 18세기까지 종교적 의학관을 제외하고는 서양 의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sup>. 그러다가 18 세기에 이르러 원자론적 철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4 體液說은 질병을 설명하는 중심적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體液說 중에서 기질(temperament)에 관한 이론은 현대 들어 성격의 생리학적 근거가 다시 중시되어 감에 따라 유형학(typology)의 하나로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sup>3)</sup>.

이와 달리 인간을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해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四象體質醫學은 1894년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의 저술을 통해 처음 발표하였다. 이후 산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들어 四象醫學會가 창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와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sup>4)</sup>.

이렇게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은 4 범주로 인간을 유형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을

유사한 의학 체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4 體液說을 매우 정교한 체질 이론으로 보고, 과거 1,500년 동안이나 주도적 이론 체계였던 4 體液說을 서양의학이 근대 의학 발전 과정에서 이미 폐기한 것과 달리 한의학은 여전히 낡은 관점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할 때, 4 體液說과 대비해 四象體質醫學을 대표적 예로 들기도 한다<sup>5)</sup>.

하지만 4 범주로 인간을 유형화했다는 형식상의 공통점만을 가지고 두 의학 체계를 유사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다시 말해서 두 의학 체계의 유사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의학 체계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두 의학 체계의 유사성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근거로 “서양의학이 이미 폐기한 낡은 관점을 한의학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 의견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의학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사적 관점에서, 즉 과학과 기술의 큰 흐름 속에서 4 體液說과 四象醫學이 어떤 과학기술사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두 의학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전면적으로 두 의학 체계를 비교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큰 틀에서 두 의학 체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두 의학의 과학기술사적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이어서 두 의학의 生理理論, 病理理論, 治療原則, 養生原則을 비교한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연구 방법

1)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선명한 비교를 위

5) 박주영. 고대 서양의학 체질론과 사상체질론의 형성과정 및 내용 비교 연구. 대한의사학회지. 2009, Vol.18(1). p.16.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P-2011-332-H00002)

\*\* 교신저자 : 백진웅.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mukjagan@naver.com Tel : 051-510-8452  
접수일(2012년 7월 23일), 수정일(201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17일)

1) 김지권, 최달영. 體液과 性格의 상관관계에 대한 文獻的 考察(體液病理學과 四象醫學을 中心으로). 동서의학회지. 1994. pp. 32-38, 40-41.

2) 황상익. 근대 이전 서양의학의 기능적 질병관과 그 극복 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1995. Vol.17(1). p.57.

3) 김지권, 최달영. 體液과 性格의 상관관계에 대한 文獻的 考察(體液病理學과 四象醫學을 中心으로). 동서의학회지. 1994. pp. 32-38, 40-41.

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11. p.41.

해서는 뼈대를 이루는 중심 이론만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四象體質醫學은 창시자인 李濟馬의 학설을 중심으로, 4 體液說은 4 體液說의 이론적 기초를 처음 정립한 히포크라테스와 이를 계승하여 완성한 갈레노스의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과 관련된 논문은 ‘사상(Sasang)’, ‘체질(constitution)’, ‘체질의학(constitutional medicine)’, ‘體液說(humor theory)’,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갈레노스 혹은 갈렌(Galenos)’, ‘동의수세보원(Dongeuiseubowon)’을 키워드로 선정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Pubmed (<http://www.pubmed.org.>), NDSL (<http://www.ndsl.kr/index.do>), KISS (<http://kiss.ksstudy.com>), RISS (<http://www.riss4u.net>)에서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또 대한의사학회(<http://medhist.kams.or.kr>), 대한한의학원전학회(<http://www.wonjeon.or.kr>), 四象體質醫學회([http://www.esasang.or.kr/new\\_home/main.htm](http://www.esasang.or.kr/new_home/main.htm)), 대한동의생리학회(<http://www.ksomp.or.kr>)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논문을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 2. 과학기술사적 흐름에서 바라본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

### 1) 과학기술사적 흐름에서 바라본 4 體液說

4 體液說이 기원한 그리스는 서양 철학과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한 이오니아 지방은 근대 자연 과학 탄생의 산실이 되었다.<sup>6)</sup> 처음 4 體液說을 정립한 히포크라테스 학파도 바로 밀레토스 학파의 계열에 속한다.<sup>7)</sup>

BC 7세기경 활동했던 이들 자연철학자들은 자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신의 뜻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연법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즉 과학적 사유 방식을 통해 이해하려 하였다.<sup>8)</sup>

BC 5 세기에는 소위 ‘후기 자연철학자’라 불리우

는 일단의 철학자들이 불, 물, 흙, 공기의 네 가지 원소들이 끊임없이 혼합했다 분해되고 화합했다 분리되면서 자연과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원소설을 주장하였다.<sup>9)</sup> 그리고 이 원소설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4 體液說 이론으로 정리되어 인체에 적용되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빛과 어둠, 냉과 온, 건과 습이 세상에 고루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인체 역시 세계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인체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조화와 부조화에 의해 건강과 질병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였다. 또 엠페도클레스는 일차적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우주의 네 근원적 뿌리로 물, 불, 공기, 흙을 산정하고, 만물의 차이를 네 요소들이 결합하는 다양한 비율들의 차이를 통해 확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의학의 대상인 인체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았다. 즉 그는 의학을 철학과 분리시키지 않고 인체를 우주 전체의 보편적 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과학적 의학을 정립하고자 했으며, 소우주와 대우주의 방법적 유비 속에서 의학의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고자 했다<sup>10)</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플라톤 등이 주장한 4 원소설을 이어 받되 여기에 자신만의 관점, 즉 성질의 우열 원칙·원소의 상호 변환 원칙·제 3원소로의 변환 원칙·질료의 특징 불변 원칙·원소 비율에 따른 물질의 분화 원칙·인간 포함 원칙 등을 덧붙임으로써 기존의 4 원소설을 총 정리하였다.<sup>11)</sup>

이상과 같은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적 시각을 히포크라테스는 구체적으로 인체에 적용시켜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4 體液을 인체의 선천적인 구성 요소로 보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기초가 세워진 4 體液說은 갈레노스가 여러 학파와 이론을 통합한 이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권위를 약 1,500 여 년

6) 권영직, 과학기술의 역사. 도서출판 북스힐. 서울. 2009. pp.25-27.

7) 엄재국, 이광, 홍영석. 서양중심의 세계과학사. 자유아카데미. 서울. 2006. pp.87-89.

8) 권영직, 과학기술의 역사. 도서출판 북스힐. 서울. 2009. p.28.

9) 안네로제 지크 지음, 김태성 번역. 의학의 발견. 해원출판사. 경기도. pp.53-54.

10) 이상인, 히포크라테스 환경의학의 과학이념과 방법. 한국과학철학회지. 2003. Vol.6(1). p.305. pp.49-50, 65-66, 69-81, 305.

11) 엄재국, 이광, 홍영석. 서양중심의 세계과학사. 자유아카데미. 서울. 2006. pp.77-79.

동안이나 유지하게 되었다<sup>12)13)</sup>.

## 2) 과학기술사적 흐름에서 바라본 四象體質醫學

李濟馬가 생존했던 시기인 19세기 중반과 후반은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로 병자수호조약(1876), 임오군란(1880),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1894) 등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무너지면서 세계열강들이 다투어 국내 진출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갑신정변을 계기로 서양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sup>14)</sup>

사실 이 시기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홍대용이나 저서 곳곳에 서양과학의 흔적을 남겨놓은 정약용 등 몇몇 실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과학과 연관 지을 만한 인물은 없었다. 즉 한국 과학사라고 특징지을 만한 흐름은 없었다. 그러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국 후의 개화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과학 문물과 과학적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sup>15)</sup>

따라서 李濟馬의 사상적 배경에 서양 과학적 사유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비록 기존의 한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는 서양 의학적 사유방식 및 방법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李濟馬가 창시한 四象體質醫學이 한국 과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유학의 흐름과 한국의학사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李濟馬의 四象體質醫學은 독창적 유학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또 우주와 인간의 모든 구조와 현상을 넷으로 분류하길 시도한 李濟馬 특유의 철학, 즉 四元構造論에 기반하고 있다<sup>16)</sup>. 四象體質醫學의 이러

한 철학적 특징은 동아시아 전통 의학 중 가장 널리 알려진 中醫學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中醫學은 자연을 대우주로, 인간을 그것에 상응하는 소우주로 규정한 후 대우주인 자연의 변화규율에 따라 인간의 삶이 형성되어 간다는 자연중심적인 사고를 하였는데, 이 때 바탕이 되는 기본 철학은 陰陽五行思想이다. 즉 中醫學은 2범주 체계인 陰陽思想과 5범주 체계인 五行思想을 기본 철학으로 삼았고, 또 인간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수동적 인간상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四象體質醫學은 인간의 개별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대처해 가는 능동성을 강조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였고,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구조와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4범주 체계인 四元構造論을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이는 지나치게 사변적인 주자학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자와 맹자 시대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유학으로 돌아가려 했던 조선 후기 유학의 흐름과 四象醫學 창시자인 李濟馬 특유의 四元構造論 및 心 우위의 心身一元論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은 사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정립된 四象體質醫學은 처음 주장된 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또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 3)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만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두 이

12) 김지권, 최달영. 體液과 性格의 상관관계에 대한 文獻의 考察(體液病理學과 四象醫學을 中心으로). 동서의학회지. 1994. pp.32-38, 40-41.

13) 반덕진. 철학적 인간학과 의학적 인간학(“고대 의학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한국의철학회지. 2010. 제 9집. p.59.

14) 정우열. 동무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 동의병리학회지. 1994. Vol.9. p.158.

15) 조근태. 우리과학 100년. 현암사. 서울. 2001. pp.14-36.

16) Yoo JH, Lee EJ, Kim CM, Lee JH, Lao LX.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 Comparative Over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pp.3-4. [PMC free articl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fundamentally based on Neo-Confucian views of nature and humanity.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fundamentally grounded on the Sasang philosophy, which perceives that all phenomenon and all matter of the universe including humans can be classified on a four-axis schema”

17) 송시원, 강정수. 유학의 흐름과 河圖洛書 및 사단칠정을 통한 東武 李濟馬의 四象人 형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Vol.19(1). pp.31-32.

론 체계는 철학적 배경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의학과 철학을 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체가 우주와 동일한 원리로 구성 및 작동한다고 보았다. 둘째, 4 범주 체계를 이용해 우주와 인체를 이해하려고 했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과학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은 조선 후기의 실용적 유학의 흐름과 李濟馬의 四元構造論 및 心 우위의 心身一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은 中醫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은 인간이 주어진 내외부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동적 존재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에서는 물·불·흙·공기와 혈액·점액·황담즙·흑담즙을 각각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제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에서는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四元構造論의 원칙을 제시한다.

표 1.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배경철학 비교

	근거주	차이주
四象體質醫學	① 의학과 철학의 비분리 - 인체와 우주가 동일한 원리로 구성 및 작동	① 조선 후기의 실용적 유학의 흐름과 이체마의 四元構造論 및 心 우위의 心身一元論에 바탕 ② 인간이 주어진 내외부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동적 존재임에 초점 ③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四元構造論만을 제시
4 體液說	② 4 범주 체계로 우주와 인체를 해석	① 고대 그리스의 자연 과학 사상에 바탕 ② 인간이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임에 초점 ③ 물·불·흙·공기와 혈액·점액·황담즙·흑담즙을 각각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제시

### 3. 生理 理論 비교

4 體液說에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4 體液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본다. 각 體液은 冷, 溫, 乾, 濕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혈액은 온기인데 심장에서 나와서 머리로 올라가고 점액은 냉기인데 머리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퍼진다. 4 體液은 또 계절에 따라서 각각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점액은 겨울에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차가우기 때문이다. 겨울에 점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가래나 콧물 등의 점액이 증가하는 것에서 증명된다. 이처럼 사계절의 기후 특성과 4 體液의 특성은 연관이 되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특정 體液이 우위를 점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의 생리 현상을 자연과 교감하는 열린 체계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中醫學의 관점과 일치한다. 또 4 體液說에서는 어떤 體液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인간의 성격 특질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혈액이 지배적 體液인 사람은 다혈질(sanguine)로, 흑담즙이 지배적 體液인 사람은 우울질(melancholia)로 분류한다<sup>18)19)</sup>.

이와 달리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인체에 나타나는 육체적 및 심리적 현상을 독립된 해부학적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계통을 이루는 인체의 여러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즉 먼저 4 범주론을 근거로 인체의 부분들과 기능들을 공통된 성질을 갖는 4 개의 계통으로 분류한 후, 같은 계통에 속하는 부분들과 기능들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생리 이론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각기관과 臟腑와 인체의 전면과 인체의 후면으로 인체 전체를 4 구획화하고, 각 부분을 또 4 구획으로 세분화한 후 공통된 특성을 갖는 부분들의 기능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생리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외에도 몸통을 上焦·

18) 김지권, 최달영. 體液과 性格의 상관관계에 대한 文獻的 考察(體液病理學과 四象醫學을 中心으로). 동서의학회지. 1994. pp.32-38, 40-41.

19) 최자영.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철학 비교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황제 내경소문”의 ‘오상정대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005. 제 81집. pp.4-15.

中上焦·中下焦·下焦로 수직적으로 4 구획화한 후 臟腑의 기능적 대소와 연결 지어 설명한 이론, 衰와 怒와 喜와 樂의 네 가지 性情과 臟腑 기능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 생리 물질의 발생과 흐름 및 이에 관여하는 인체 기관의 역할을 설명한 이론 등 四象體質醫學의 주요 생리 이론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정립되어 있다.

특히 四象體質醫學의 생리 이론의 핵심이 되는 臟腑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衰와 怒와 喜와 樂의 네 가지 性情의 편차에 따라 肺·脾·肝·腎의 기능 대소가 다르게 결정되는데, 이 중 가장 강한 臟腑와 가장 약한 臟腑 둘을 짝지어 인간을 4 유형화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肺·脾·肝·腎은 서양의학에서의 肺·脾·肝·腎의 개념과는 다르다. 肺는 肺와 기능적 연관성을 가진 胃脘과 귀와 턱과 前頭와 피부 등의 인체 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肺黨을 의미한다. 脾는 脾와 胃와 눈과 胸과 背脊과 筋을 모두 포괄하는 脾黨을, 肝은 肝과 小腸과 코와 배꼽과 腰脊과 肉을 모두 포괄하는 肝黨을, 腎은 腎과 大腸과 입과 小腹과 골반과 뼈 등을 모두 포괄하는 腎黨을 의미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체질별 臟腑 기능의 대소를 살펴보면, 太陽人은 肺大肝小하고 太陰人은 肝大肺小하고 少陽人은 脾大腎小하고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臟腑 기능의 대소 차이에 따라 체질별로 생리적 특성이 달라진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생리 이론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생리 현상을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국소적 기능이 아니라 철학적 추론에 근거한 종합적 기능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인간을 네 종류로 유형화하였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이 생리 이론의 중심이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性情과 性情의 편차에 의해 형성된 臟腑의 기능 대소가 생리 이론의 중심이다. 둘째, 4 體液說의 생리 이론에서는 4 體液과 관련된 인체의 몇 가지 기

관만을 언급하지만 四象體質醫學의 생리 이론에서는 인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4 體液說에서는 주도적 體液의 종류에 따라 성격을 4 분류하는 것에 그쳤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心身의 모든 구조와 기능과 현상을 4분류함으로써 훨씬 구체적으로 4 유형화하였다. 넷째, 4 體液說의 생리 이론에서는 자연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언급 없이 인간 자체의 특성을 중시한다. 다섯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 중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肺黨과 肝黨, 脾黨과 腎黨 사이의 특별한 상호 대립 관계에 의해 생리적 특성이 달라진다.

표 2.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생리이론 비교

	공동점	차이점
四象體質醫學	① 생리 현상을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국소적 기능이 아니라 철학적 추론에 근거한 종합적 기능 중심으로 파악	① 性情과 性情의 편차에 의해 형성된 臟腑의 기능 대소가 생리 이론의 중심 ② 인체 전체를 대상 ③ 心身의 모든 구조와 기능과 현상을 4분류함 ④ 인간 자체의 특성을 중시 ⑤ 肺黨과 肝黨, 脾黨과 腎黨 사이의 특별한 상호 대립 관계에 의해 생리적 특성이 달라짐
4 體液說	② 인간을 네 종류로 유형화	① 4 體液이 생리 이론의 중심 ② 4 體液과 관련해 인체의 몇 가지 기관만을 언급 ③ 주도적 體液의 종류에 따라 성격을 4 분류 ④ 자연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 ⑤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4. 病理 理論 비교

4 體液說에 따르면, 계절과 기온 변화에 따라 4 體液의 강도 변화와 상호 작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조화와 부조화에 의해 건강과 불건강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4 體液의 부조화에 의해 어느 한 體液이 흘러나오면 원래 있던 공간에 병이 들 뿐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11. pp.645-647.

아니라 흘러들어 가는 곳도 부풀어 오르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sup>21)22)</sup>. 이처럼 4 體液說에서의 질병은 한마디로 體液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장애다.

四象體質醫學에 따르면, 衰와 怒와 喜와 樂의 性情의 편차에 의해 체질별로 臟腑 기능의 대소가 결정되는데,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장 강한 臟腑의 기능이 더욱 강해지거나 가장 약한 臟腑의 기능이 더욱 약해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즉 臟腑 기능의 대소로 사상인의 기본적 조건을 정의한 후,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臟腑 기능 사이의 불균형의 심화가 체질별 질병을 유발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太陰人은 기본적으로 肝大肺小한데, 어떤 요인에 의해 肝의 기능이 더욱 강해지거나 肺의 기능이 더욱 약해져서 肝黨과 肺黨의 기능 강약 차이가 크게 벌어질수록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sup>2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병리 이론은 여러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의 불균형을, 四象體質醫學에서는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본다. 둘째, 4 體液說에서는 외부 환경 요인을 중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내부 요인을 중시한다. 셋째, 4 體液說에서는 모든 종류의 體液의 불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특정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은 특정 체질에만 나타난다. 넷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 중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태양인과 태음인의 경우에는 肺黨과 肝黨, 少陽人과 少陰人의 경우에는 脾黨과 腎黨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

표 3.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病理이론 비교

	공통점	차이점
四象體質醫學	여러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봄	①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봄 ② 내부 요인을 중시 ③ 특정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은 특정 체질에만 나타난다 ④ 체질별로 특정 臟腑의 편차가 발생함
4 體液說	4 體液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봄	① 4 體液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봄 ② 외부 환경 요인을 중시 ③ 모든 종류의 體液의 불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 ④ 4 體液 중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5. 治療 原則 비교

4 體液說에서의 치료의 최종 목표는 4 體液이 건강하던 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中醫學과 상당히 유사하다. 첫째, 4 體液說에서는 부분의 치료가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몸의 유기적 연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외과적 처치도 내과적 치료법의 보조 수단으로 몸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둘째, 내과적 치료는 식물과 일부 동물성 물질을 이용한다. 셋째, 병은 획일적 방법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즉 병을 앓고 있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4 體液의 성쇠가 계절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도 계절별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잘 생기는 병은 여름에 낫고, 여름에 잘 생기는 병은 겨울에 낫는다<sup>24)</sup>.

四象體質醫學에서의 치료의 최종 목표는 가장 강한 臟과 가장 약한 臟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내과적 치료법을 사용하는데, 한약재를 체

21) 최자영.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철학 비교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황제 내경소문”의 ‘오상정대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005. 제 81집. pp.4-15.  
22) 윤병태. 히포크라테스와 헤겔의 질병론. 헤겔연구. 2009. Vol.25. pp.120-121.  
2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고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11. pp.645-647.

24) 최자영.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철학 비교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황제 내경소문”의 ‘오상정대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005. 제 81집. pp.4-15.

질별로 분류한 후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혼합한 한약 처방을 내복한다. 한약재가 복합된 한약 처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中醫學의 치료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中醫學에서의 치료 목적은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외부 병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四象體質醫學에서는 臟腑 기능 대소의 편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과 또 心身의 수양과 실천을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5)2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치료 원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치료의 궁극적 목적이 불균형의 회복이다. 둘째, 자연에서 채취한 약재를 이용한 내과적 치료를 중시한다. 셋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 고려하는 개인별 차이는 주로 개인이 처한 외부적 환경 차이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 고려하는 개인별 차이는 개인의 내부적 臟腑 기능의 차이이다. 둘째, 4 體液說에서는 증상에 따라 치료 약물을 분류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치료 약물을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일차 분류한 후 각 증상에 따라 다시 세분한다.

표 4.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치료원칙 비교

	공통점	차이점
四象體質醫學	① 불균형의 회복 ② 내과적 치료를 중시 ③ 개인별 차이를 고려	① 개인의 내부적 臟腑 기능의 차이 중시 ②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물을 일차 분류한 후 각 증상에 따라 다시 세분
4 體液說		① 개인이 처한 외부적 환경 차이 중시 ② 증상에 따라 치료 약물을 분류

25) 이항재, 최승훈.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비교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1997. Vol.9(2). pp.135-143.  
26) Kim JY, Pham DD, Koh BH. Comparis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Ayurveda.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pp.4-5. [PMC free article]

## 6. 養生 原則 비교

4 體液說에서는 인체를 강하게 변화시킬 때는 약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음식 혹은 운동을 이용한다. 건강한 자연의 상태로 인체를 되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약, 운동, 음식을 고루 사용한다는 점에서 4 體液說은 養生을 매우 중시한 의술이다<sup>27)</sup>.

四象體質醫學에서는 性情의 편차에 따라 臟腑 기능의 편차가 발생하는데, 臟腑 기능의 편차가 커질수록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 질병에 가까워진다는 병리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臟腑 기능의 편차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哀와 怒와 喜와 樂의 조절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四象體質醫學에서는 마음의 수양과 실천을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sup>2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은 養生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동시에 4 體液說은 음식과 운동 등 인체 외부 요소와 육체적 요소를 중시하고 四象體質醫學은 마음의 수양과 실천을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5. 四象體質醫學과 4 體液說의 養生原則 비교

	공통적	차이점
四象體質醫學	養生을 중시	마음의 수양과 실천을 중시
4 體液說		인체 외부 요소와 육체적 요소를 중시

## III. 結 論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유사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과학사적 흐름에서 두 이론 체계를 살펴본

27) 최자영.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철학 비교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황제 내경소문”의 ‘오상정대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005. 제 81집. pp.4-15.  
2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11. pp.645-647.



고, 이어서 두 의학의 배경철학, 生理理論, 病理理論, 治療原則, 養生原則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은 철학적 배경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의학과 철학을 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체가 우주와 동일한 원리로 구성 및 작동한다고 보았다. 둘째, 4 범주 체계를 이용해 우주와 인체를 이해하려고 했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과학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은 조선 후기의 실용적 유학의 흐름과 李濟馬의 四元構造論 및 心 우위의 心身一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은 中醫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임에 초점을 두지만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은 인간이 주어진 내외부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동적 존재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4 體液說의 배경 철학에서는 물, 불, 흙, 공기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을 각각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제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의 배경 철학에서는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四元構造論만을 제시한다.

2.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생리 이론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생리 현상을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국소적 기능이 아니라 철학적 추론에 근거한 종합적 기능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인간을 네 종류로 유형화하였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이 생리 이론의 중심이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性情과 性情的 편차에 의해 형성된 臟腑의 기능 대소가 생리 이론의 중심이다. 둘째, 4 體液說의 생리 이론에서는 4 體液과 관련해 인체의 몇 가지 기관만을 언급하지만 四象體質醫學의 생리 이론에서는 인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4 體液說에서는 주도적 體液의 종류에 따라 성격을 4 분류하는 것에 그쳤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心身の 모든 구조와 기능과 현상을 4분류함으로써 훨씬 구체적으로 4유형화하였다. 넷째, 4 體

液說의 생리 이론에서는 자연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언급 없이 인간 자체의 특성을 중시한다. 다섯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 중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肺黨과 肝黨, 脾黨과 腎黨 사이의 특별한 상호 대립 관계에 의해 생리적 특성이 달라진다.

3.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병리 이론은 여러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의 불균형을, 四象體質醫學에서는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을 질병의 궁극적 원인으로 본다. 둘째, 4 體液說에서는 외부 환경 요인을 중시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내부 요인을 중시한다. 셋째, 4 體液說에서는 모든 종류의 體液의 불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특정 臟腑 기능 대소의 불균형은 특정 체질에만 나타난다. 넷째, 4 體液說에서는 4 體液 중 특정 體液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태양인과 태음인의 경우에는 肺黨과 肝黨, 少陽人과 少陰人의 경우에는 脾黨과 腎黨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

4.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의 치료 원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치료의 궁극적 목표가 불균형의 회복이다. 둘째, 자연에서 채취한 약재를 이용한 내과적 치료를 중시한다. 셋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다. 반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첫째, 4 體液說에서 고려하는 개인별 차이는 주로 개인이 처한 외부적 환경 차이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 고려하는 개인별 차이는 개인의 내부적 臟腑 기능의 차이이다. 둘째, 4 體液說에서는 증상에 따라 치료 약물을 분류하지만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치료 약물을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일차 분류한 후 각 증상에 따라 다시 세분한다.

5.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은 養生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동시에 4 體液說은 음식과 운동 등 인체 외부 요소와 육체적 요소를 중시하고 四象體質醫學은 마음의 수양과 실천을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6. 이상의 결과를 총괄하면,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을 유사한 의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두 의학을 상이한 의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공통점이 만들어 내는 공통된 모습보다는 차이점이 만들어 내는 서로 다른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다. 그러므로 두 의학은 비록 몇 가지 공통점을 가졌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저히 다른 의학 체계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특히 기존의 한의학은 증치 의학이라고 규정하고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體質醫學이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구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4 體液說과 四象體質醫學과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4 體液說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體質醫學이라고 볼 수가 없다.

## 參考文獻

<논문>

1. 김지권, 최달영. 體液과 性格의 상관관계에 대한 文獻의 考察(體液病理學과 四象醫學을 中心으로). 동서의학회지. 1994. pp. 32-38, 40-41.
2. 황상익. 근대 이전 서양의학의 기능적 질병관과 그 극복 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1995. Vol.17(1). p.57.
3. 박주영. 고대 서양의학 체질론과 사상체질론의 형성과정 및 내용 비교 연구. 대한의사학회지. 2009, Vol.18(1). p.16.
4. 엄재국, 이광, 홍영석. 서양중심의 세계과학사. 자유아카데미. 서울. 2006. pp.77-79, 87-89.
5. 안네로제 지크 지음, 김태성 번역. 의학의 발견. 해원출판사. 경기도. pp.53-54.
6. 이상인. 히포크라테스 환경의학의 과학이념과 방법. 한국과학철학회지. 2003. Vol.6(1). p.305. pp.49-50, 65-66, 69-81, 305.
7. 반덕진. 철학적 인간학과 의학적 인간학("고대 의학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한국의철학회지. 2010. 제 9집. p.59.

8. 정우열. 동무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 동의 병리학회지. 1994. Vol.9. p.158.
9. 송시원, 강정수. 유학의 흐름과 河圖洛書 및 사단칠정을 통한 東武 李濟馬의 四象人 형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Vol.19(1). pp.31-32.
10. 최자영. "히포크라테스"와 동방의 전통 의학 철학 비교("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본질' 및 '인체의 부분'과 "황제내경소문"의 '오상정대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2005. 제 81집. pp.4-15.
11. 윤병태. 히포크라테스와 헤겔의 질병론. 헤겔 연구. 2009. Vol.25. pp.120-121.
12. 이항재, 최승훈.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 Vol.9(2). pp.135-143.
13. Yoo JH, Lee EJ, Kim CM, Lee JH, Lao LX.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 Comparative Over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pp.3-4.
14. Kim JY, Pham DD, Koh BH. Comparis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Ayurveda.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pp.4-5.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11. p.41. pp.645-647.
2. 광영직. 과학기술의 역사. 도서출판 북스힐. 서울. 2009. pp.25-28.
3. 조근태. 우리과학 100년. 현암사. 서울. 2001. pp.14-36.